

출판사의 간판 '연속기획물' 새롭게 선보인다

단발성 베스트셀러 만들기 풍토에 신선한 자극주는 시리즈물 잇달아 출간

시리즈물은 그 출판사를 대표하는 입간판과도 같다. 단행본을 한두권 내는 것으로 출발한 출판사들도 어느정도의 경륜이 생기면 그 출판사를 내세울만한 시리즈물을 제작하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출판사들은 이미 시리즈물을 한두권에서 수십권에 이르기까지 출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경륜이 있는 출판사라 해도 무턱대고 시리즈물을 제작할 수 없다는 게 경험있는 출판사 기획인의 얘기다. 참신한 기획 의도와 맞물려 오랜 기간의 자료수집과 편집 수완, 출판사의 노하우 등이 집적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이 얼마만큼 완벽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리즈물은 제작경험이 있는 출판사들이 선수를 치는 경우가 많다.

시리즈의 출간형태는 한꺼번에 제작돼 출간되는 경우와 점진적으로 한두권씩 출간하는 형태가 있다. 시리즈물이 치중하는 분야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 아동물인 경우는 한꺼번에 제작돼 '질' 단위로 출간되지만 다른 인문 교양도서, 경영서적인 경우에는 처음 두세권이 출간되고 나서 어느정도 독자들에게 이 시리즈가 낯익을 즈음 한두권씩 차례를 지켜 완결되는 형태. 한 출판인은 "시리즈는 성격상 전체가 완결돼야만 '움직이는 책'이 된다"고 한다. 어느 시점에서든 끝을 봐야만 그 시리즈의 위용이 발휘된다는 얘기인듯 싶다. 최근에 출간된 시리즈물은 일정한 출간됐으나 책날개에 '근간'이라고 표시한 '현재진행형' 중인 시리즈가 많다. 그중에도 참신한 기획력으로 제작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곳곳에서

기획이 얼마만큼 완벽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시리즈물. 최근들어 참신한 기획과 탄탄한 경륜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시리즈물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때로 기획의도에 부합되는 필자발굴이 큰 난관으로 작용하는 수도 있으나 자료수집과 편집수완, 출판사의 노하우 등이 집적돼 있어 출판사들의 경륜을 함께 읽을 수 있다.

눈에 띈다.

출판사 성향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고정독자층을 겨냥한 기획 시리즈는 그와 유사한 다 출판사들의 시리즈와 경쟁이 붙을 염려가 있다. 고려원에서 기획한 '열린글방' 시리즈는 완결되면 총 9권이다. 청소년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길러주자는 기획의도에서 비롯된 시리즈다. 필자는 숙명여대 교수 최시한과 우찬제, 허병두 등이 대거 참여했다. 허병두씨가 지은 「글쓰기 열두마당」은 이미 출간됐다. 이 책은 대학입시에서의 논술고사를 겨냥한 것으로 글쓰기에 관한 자신감과 아울러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 표현력, 전달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뒤따라 나올 사회과목의 내용은 최시한 교수가 자신의



'근간'예정에 있는 시리즈물은 완결되기 전에 한두권을 먼저 출간해 독자들에게 '낯익히기'를 시도한다.



「여백의 질서」를 쉽게 풀어 썼다는 귀뜸이 있다. 이 '열린글방' 시리즈는 수능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을 독자층으로 겨냥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리즈는 현재 김영사에서 기획중인 '수능시리즈'와 경합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독자층이 얇은 시리즈들은 탄탄한 기획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사한 성격의 시리즈와의 경쟁에서 뒤질 위험이 따른다.

이와 달리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시리즈는 대개 출판사의 경륜을 내세워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웅진출판에서 출간중인 '문학앨범' 시리즈가 그것, 해당 문인의 대표작과 성장과정, 작품론, 작가 자신이 쓴 인생과정, 문학론 등을 수록한 이 문학앨범 시리즈는 독자들의 관심사는 물론 문학전문 연구가들에게 많은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자세한 연보와 작품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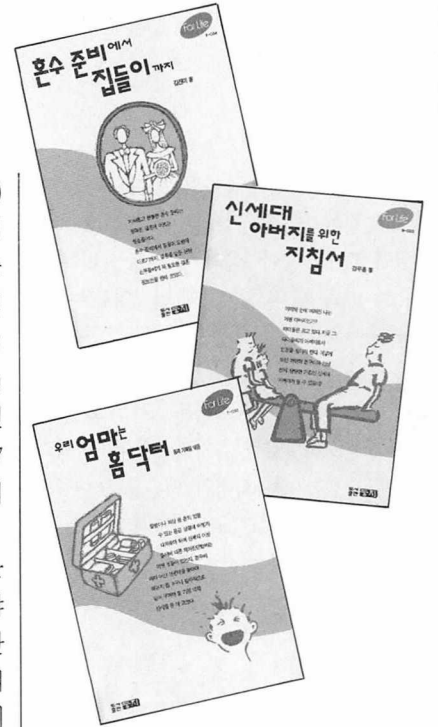
참고도서까지 실었다. 특히 지금까지 미공개된 작가의 귀중한 사진들을 많이 곁들여 우리 시대를 대표할만한 문학인들의 면모와 작품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산책로'로 열어주고 있다. 현재 출간된 책은 92년도 7월에 출간된 「신경림-삶과 문학의 만남」을 시작으로, 「박완서-행복한 예술가의 삶」「고은-파란과 신명의 축제」「이호철-탈향에서 귀향까지」「서정주-미당산, 광활한 정신의 숲」 이상 5권이 다. 곧이어 이문열, 김정환, 김동리, 황지우 순으로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시리즈는 기획의도에 부합되는 필자발굴이 큰 난관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해난터에서 '한국추리문학시리즈'를 기획했으나 지금껏 「세 얼굴을 가진 사나이」(김성중 지음) 「깊은 골짜기 깊은 비밀」(임춘남 지음) 「사이코 매직」(이상우 지음) 등을 출간한 정

<p>글동산 세계 명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발장 로미오와 줄리엣 탐 소여의 모험 시턴 동굴기 파브르 곤충기 안네의 일기 작은 아씨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닐스의 신기한 여행 	<p>보물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지(상, 하) 어린 왕자 해저 2만 마일 사랑의 학교 이솝 이야기 빨간머리 앤 오디세이아 아라비안 나이트(상, 하) 탈무드 	 <p>꿈이 있는 책</p>  <p>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TEL / 336 · 5804 333 · 9991, 2 FAX / 333 · 9996</p> <p>도서출판 글동산</p>	<p>그리스 로마 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매기의 꿈 마지막 잎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마지막 수업 아Q 정전 수레바퀴 아래서 크리스마스 캐럴 키다리 아저씨 노인과 바다 	<p>글동산 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 한국사(I, II) 한국 전래 동화 어린이 명심보감(상, 하) 중국의 옛날 이야기 인도의 옛날 이야기 프랑스의 옛날 이야기 북유럽의 옛날 이야기 페르시아의 옛날 이야기 이야기 목민심서 	<p>글동산 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화 김삿갓 만화 쥐뿔 만화 일지매 만화 사자소학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고사성어 만화 임궽정 만화 공포 만화 괴도 루팡
---	--	--	--	---	---

독서생활화 추세 겨냥한 새 문고본

실용정보 중심으로 기획된 등지의 'For Life' 시리즈



‘문고본 실용정보 서적’을 표방하며 전 60권짜리 대형전집들로 기획된 등지출판사의 ‘For Life’ 시리즈 3차분이 출간됐다. 이번 출간된 책들은 「우리 엄마는 홈닥터」(등지기기획팀) 「신세대 아버지를 위한 지침서」(강무홍) 「신세대 주부를 위한 임신 출산 완벽 정보」(김진미) 「혼수준비에서 집들이까지」(김진미) 「문화가 명소산책」(정운) 등 5권. 지난 7월 중순 첫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 모두 20권이 시중에 나와 있다.

고전적 문고본의 개념으로 보자면 ‘For Life’ 시리즈는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과 독자의 요구를 잘 파악한 ‘참신한’ 문고본인 것이다. 출판사측은 최근의 출판경향과 앞으로의 동향을 분석, 이제 책이 흐르는 정보를 ‘가두는’ 그릇이어야 함을 확인한 듯하다. 그리고 독서의 실용화·생활화 추세에 맞추어 소외됐던 문고본의 부활을 당연한 현상으로 점친 것. 이같은 분석하에 시리즈명도 “현대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책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For Life’로 정했다. 따라서 이 시리즈가 독자에게 약속한 캐치프레이즈는 ‘정보, 성취, 건강, 행복’ 네 가지. 95년말까지 모두 60권을 낼 계획인데, 현재 반응이 좋아 100권까지 늘릴 생각도 하고 있다고.

시리즈는 내용별로 크게 A항목 직장·사회생활, B항목 부부·가정생활, C항목 취미·오락·문화생활, D항목 스포츠·레저·여행, E항목 육아·여성, F항목 건강 등 크게 6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필자들은 잡지사·여성

지·사보 기자를 역임한 프리랜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만큼 왕성한 취재력이 강점이라 할 만하다.

참고로 지금까지 나왔던 목록을 일별해 보면 「성공으로 가는 개성면접」 「특성별 심리과약」 「맞벌이 부부의 성공학」 「반짝이는 생활의 지혜들」 「내손으로 가꾸는 늘푸른 우리집」 「마이카 시대의 오토드라이버」 「부부가 함께 하는 태교법」 「남성패션 코오디네이션」 「숙취로부터의 탈출」 「완벽 피임가이드」 「자투리시리즈 100% 활용법」 「즐거며 마시는 전통차와 한방차」 「신세대 화장법」 「여성패션 코오디네이션」 등 15권.

분야별로 분류돼 서점에 분산 배치돼 있어 찾기가 힘든 점이 흠.

도. 국내에서도 걸출한 추리작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증거일 듯 싶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낼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곧 출간될 작품 두권을 손질중에 있으며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데로 계속” 낼 예정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출판사의 입간판과도 같은 시리즈는 가장 자신있는 분야를 파고들기 쉽다. 시리즈의 기획의도와 엇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종을 출간한 적이 있어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간파한 후에 한꺼번에 시리즈로 제작하는 경우다. 현재 서점에 나와있는 책을 살펴보면 새길, 한나래, 한샘, 길벗, 등지 등에서 낸 책이 여기에 속한다.

도서출판 ‘새길’에서 새길을 대표하는 교양 시리즈로서 ‘지혜가 드는 창’ 시리즈를 낸 것도 그동안 이와 비슷한 책을 냈던 경험이 있어서다. 시험답안에서 논문까지 글쓰기의 고민을 덜어주는 ‘글쓰기 소프트」(김해식 저)를 비롯, 충북대 윤구병 교수가 엮은 「철학의 명저」(한국철학사상연구회) 「상식 밖의 세계사」(안효상 저) 「미학오디세이 1·2」(진중권 저) 「사회학의 명저 20」(김진권 외 저) 「설록 홈즈의 추리학」 「이야기 서양고사성어」(남경태 저) 「상식 속의 철학 상식 밖의 철학」 「논리 속의 철학 논리 밖의 철학」(이진경 저) 등 지금까지 총 10여권이 집적된다.

가장 자신있는 분야를 시리즈로

내용은 다르지만 교양시리즈라는 면에선 같은 대열에 속하는 시리즈가 한샘 출판사의 ‘미네라바 신서’이다. 지금껏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이야기」 「대중문화의 결과 속」

(강준민 저) 「영화즐거기」(정재운 저) 「한국의 사상」(정용선 저) 등 현재 5권을 냈다.

이 시리즈는 역사, 대중문화, 사상 등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입문” 성향이 강한 시리즈다. 도서출판 ‘한나래’도 출판사를 대표하는 시리즈로서 ‘언론 문화총서’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는 언론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룬 내용중심의 시리즈.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강상헌 외 저)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김동민 저) 「대중매체와 페미니즘」(원용진 외 저) 등 총 6권이 출간됐고, 근간에정인 책은 「대중문화론」(원용진 저) 「보도사진」(엄영호 저)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강길호 외 저) 등으로 밝혔다.

경제분야도 기업간의 ‘경쟁력 전쟁’에서 비롯된 듯,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한 시리즈가 있다. 도서출판 길벗에서 출간한 기업시리즈는 「IBM」(김영진 저) 「도요타」(정병유 저) 「파나」(류재현 저) 「동남아 화교기업」(이문봉 저) 「프루덴셜」(이경주 저) 외 총 15권으로 “도전과 혁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일류기업총서”이다. 이 시리즈는 세계 일류기업을 다루는 기획에 모두 국내 저자들을 적절하게 기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내용면에서 꼭 필요한 생활상식과 생활정보에 치중한 시리즈도 있다. 도서출판 ‘등지’에서 기획한 50여종의 ‘For Life’ 시리즈. 기획의도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과 생활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한 생활정보서”이다. 이 시리즈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출간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간된다는 점이다.

—배은희 기자

- 1 부활/톨스토이 2 좁은 문(외)/앙드레 지드 3 AQ정전(외)/노신
- 4 대위의 딸(외)/푸슈킨·톨스토이 5 체털리 부인의 사랑/로렌스
- 6 폭풍의 언덕/에밀리 브론테 7 귀여운 여인(외)/체홉
- 8 첫사랑·전날밤/투르게네프 9 데미안(외)/헤르만 헤세 10 파우스트/괴테
- 11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괴테 12 햄릿(외)/셰익스피어
- 13 마지막 일새(외)/오 헨리 14 성(城)·변신/카프카 15 보바리 부인/플로베르
- 16 주홍 글씨(외)/호돈 17 테스/토머스 하디 18 신곡/단테
- 19 여자의 일생(외)/모파상 20 적과 흑/스탈람 21 검은 고양이(외)/포우
- 22 제인 에어/샬롯 브론테 23 개선문/레마르크
- 24 무기여 잘 있거라(외)/헤밍웨이 25 실낙원·복낙원/밀턴
- 26 안네의 일기(외)/안네 프랑크 27 보물섬(외)/스티븐슨
- 28 그리스 로마 신화/토머스 불핀치 29 골짜기의 백합/발자크 30 성채/크로닌
- 31 나나/에밀 졸라 32 일리아드/호메로스 33 오딧세이아/호메로스
- 34 닥터 지바고/파스테르나크 35 누구를 위하여 조종은 울리나/헤밍웨이
- 36 37 적와 벌/도스토예프스키 38 39 대지/쉴러
- 40 셰익스피어 4대 비극/셰익스피어 41 어린 왕자·야간 비행/생텍쥐페리

헤원은 성실히 양서를 출판하겠습니다



헤원세계문학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전화 / 336 · 5804 333-9991, 2
FAX / 333 · 9996

헤원출판사

- 42 이방인·페스트/카뮈 43 분노의 포도/존 스타인벡 44 백경/허먼 멜빌
- 45 46 카라마조프 가 형제/도스토예프스키
- 47 48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마거릿 미첼 49 생의 한가운데/루이제 린저
- 50 백년 동안의 고독/마르케스 51 천국의 열쇠/크로닌
- 52 가시나무새/폴린 맥컬로우 53 달과 6펜스/서머셋 몸
- 54 55 56 레미제라블/빅토르 위고 57 셰익스피어 희극선/셰익스피어
- 58 지와 사랑/헤르만 헤세 59 위대한 유산/디킨스 60 61 안나 카레니나/톨스토이
- 62 63 데카메론/보카치오 64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65 타고르 선집/타고르
- 66 초당(草堂)/강용홍 67 아에네이스(외)/베르길리우스
- 68 멋진 신세계(외)/허슬리 69 세계의 신화 전설 70 71 72 전쟁과 평화/톨스토이
- 73 동물농장·1984/조지 오웰 74 인간 요건·사랑의 종말/그레이엄 그린
- 75 성채/생텍쥐페리 76 춘희·카르멘/뒤마 피스·메리메 77 인형의 집(외)/임센
- 78 어머니/고리키 79 천로역정/존 버니언 80 유리알 유희/헤르만 헤세
- 81 에덴의 동쪽/존 스타인벡 ■ 장 크리스토프/로맹 롤랑
- 구토(외)/사르트르 ■ 말테의 수기(외)/랄케

* 헤원 세계 문학은 계속 나옵니다. *